



파독간호사 모국방문단 환영만찬이 대한간호협회 주최, 더케이호텔 서울 후원으로 열렸다.

파독간호사 50주년 기념 모국방문단 환영

간첩 환영만찬 개최 ... 파독간호사, 한국 간호역사의 귀감

대한간호협회는 파독간호사 모국방문단을 환영하는 만찬을 10월 25일 더케이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었다. 독일은 물론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파독간호사 등 104명이 고국에 왔다.

환영사를 한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파독간호사 모국방문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됐으며, 역경을 극복하고 도전과 열정의 삶을 살아온 파독간호사들은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앞으로 파독간호사 여러분을 위한 일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고국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고, 가을 산천도 둘러보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만찬을 후원한 더케이호텔 서울 신현대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개인사업을 할 당시 독일을 71번 방문했고, 명예교민이기도 한 인연이 있어 파독간호사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

다”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애쓰신 여러분을 모시게 돼 영광스럽고, 직원들이 성정을 다해 만찬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축사를 한 윤종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파독간호사들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이만큼 발전했으며, 여러분은 한국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셨다”면서 “파독간호사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있으며, 늘 마음 깊이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파독간호사들에게 끊임없는 감사와 존경을 보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민간외교관으로서 역할을 계속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영운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은 “여러분을 만나게 돼 감개무량하다”면서 “참으로 기난했던 시절을 이겨내고 세계의 강국이 된 오늘의 대한민국은 바로 파독간호사 여러분의 열정의 몸부림이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말했다. 윤행자 재독한인간호협회장은 “파독간호사 50주년을 기념해 올해 초부터 모국방문단을 계획

하고 준비해왔다”면서 “조국이 있어 감사하고, 간호사여서 행복하고, 우리들의 모체인 대한간호협회에서 환영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날 만찬에는 고정원 파독산업전사세계총연합회장,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 명예총재 등이 자리했다. 만찬 사회자는 정지훈 아나운서가 맡았다.

한편 파독간호사 모국방문단은 10월 24~31일 한국에 머물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국회 현정기념관에서 모국방문 기념식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윤행자 재독한인간호협회장이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통일안보보안과 도리전망대 등을 돌아봤으며, 파독간호사 50주년 기념 특별공연으로 마련된 ‘뮤지컬 도일아리랑’도 함께 관람했다. 독일아리랑은 파독간호사와 광부들이 흘린 땀의 가치를 통해 희망을 이야기하는 창작 뮤지컬이며, 아리랑엔터테인먼트(대표·이종서)에서 제작했다.

정규숙 기자 ksung@koreanurse.or.kr

Complex PCI 국제학술회의

제1회 Complex PCI : Make It Simple! – Technical Forum A to Z 국제학술회의가 12월 1~2일 서울 웨리온 그랜드 워커힐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재)심장혈관연구재단과 서울아산병원이 공동주최한다. 등록비 무료, 사전등록은 11월 18일까지 홈페이지(www.complex-pci.com)에서 하면 된다.

‘암환자의 심리증상 완화를 위한 인지행동치료’ ‘환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암환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례’

‘환자코칭·멘토링 프로그램’ ‘암환자 건강증진교육’ 등 암환자 교육 프로그램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종양간호학회에서 실시한 정책

연구 ‘국내 암병원 실태조사’ 결과

광주시간호사회 간호지도자 윤리세미나

광주시간호사회(회장·박인혜)는 ‘2016 간호지도자 윤리세미나’를 10월 15일 여수에서 개최했다.

간호사회 임원, 산하단체 회장, 간호대학 학과장, 병원 간호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박인혜 회장이 ‘간호정책 변화와 대응전략’ 주제 특강을 했다. 올해 광주시간호사회에서 진행한 주요사업을 소개했다. 간호현안과 대한간호협회의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



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여수 오동도 등을 둘러보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최수정 기자 sjchoi@

부산시간호사회 경력간호사 리프레시 데이

부산시간호사회(회장·이영은)는 경력간호사들의 재충전을 돋기 위한 ‘리프레시 데이’ 프로그램을 10월 11일 개최했다.

지난 8월 ‘경력간호사를 위한 Cheer-Up 무비데이’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 리프레시 데이이다.

이날 만찬에는 고정원 파독산업전사세계총연합회장,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 명예총재 등이 자리했다. 만찬 사회자는 정지훈 아나운서가 맡았다.



아이는 향을 사용해 나만의 향초와 방향제를 직접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아름다운 향기에 취하며 헐렁할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숙현 기자 shkim@

경북간호사회 간호사 역량강화 세미나

경북간호사회(회장·윤난숙)는 간호사 역량강화 세미나를 ‘감염관리 실무교육’ 주제로 10월 13일 개최했다.

‘변화하는 감염관리 정책과 실무’ ‘의료관련 감염관리의 진단과 관리’ ‘세척, 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격리 프로그램 손 위생’ 등의 주제강연이 진행됐다.

윤난숙 회장은 “병원 내 감염관리와 환자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에 발맞춰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



다”면서 “감염관리에 대한 최신지견과 전문지식을 향유하고,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숙현 기자 shkim@

대한종양간호학회 ‘암환자 교육’ 학술대회

대한종양간호학회(회장·김광성)는 제17차 추계학술대회를 ‘암환자 교육 상담기법 및 실무적용’ 주제로 10월 21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Motivational Interviewing’ ‘암환자의 심리증상 완화를 위한 인지행동치료’ ‘환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암환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례’ ‘환자코칭·멘토링 프로그램’ ‘암환자 건강증진교육’ 등 암환자 교육 프로그램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종양간호학회에서 실시한 정책

연구 ‘국내 암병원 실태조사’ 결과



와 우수논문이 발표됐다.

김광성 회장은 “간호에서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교육·상담에 대한 강연과 발표를 통해 실무에 도움이 되고, 함께 경험을 나누며 종양간호를 발전시키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



국군간호사관학교 국제 재난간호 컨퍼런스

재난간호 역량강화 ...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국군간호사관학교(교학장·윤원숙 장군)는 제6회 국제 재난간호 컨퍼런스를 ‘Smarter Nursing, Safer Community’ 주제로 10월 27~28일 성남 밀리토피아호텔에서 개최했다.

컨퍼런스에서는 미국, 영국, 스웨덴, 싱가포르, 중국 등의 재난간호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재난 실무경험과 연구결과 등을 공유했다. 다양한 주제의 발표와 워크숍, 분과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난 상황에 대비한 실질적인 역량강화 및 국가 간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재난의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 ‘근거기반 시뮬레이션과 훈련 전략 및 재난관리 정량화와 미래수요 기반의 역량 증대 방안’ 주제로 기조연설이 진행됐다.

본회의에서는 ‘재난대비/대응과 간호리더십’ ‘재난교육 훈련의 필요수요’ ‘다음 재난대비를 위한 지역사회 역량과 복원력 강화’ 등의 주제가 밝혀졌다.

윤원숙 교학장은 훈련에서 “신종감염병, 자연재난, 국제분쟁과 테러위협 등의 재난상황이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재난대비 역량 강화는 물론 실전에 입각한 체계적인 재난대비 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축사를 한 윤종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재난 대비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재난간호교육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재난 교육에 앞장서왔다”며 “재난간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

가톨릭상지대 간호학과 20주년 ... 최고를 향한 비상

가톨릭상지대 간호학과는 개교 20주년 기념행사를 ‘도약과 열정의 20년! 최고를 향한 비상!’ 주제로 10월 26일 개최했다.

내·외빈과 동문, 교직원, 재학생 등 550여명이 참석해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비상을 다짐했다.

류은경 간호학과장은 개회사를 통해 “1996년 학과 개설 후 가톨릭 정신을 토대로 학생들의 인성함양·실무역량강화·글로벌역량강화 등에 힘써왔다”면서 “도약과 열정의 지난 20년을 통해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으며, 최고를 향해 비상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일 가톨릭상지대 총장이 격려사, 윤난숙 경북간호사회장과 김

종희 안동성소병원장이 축사를 했다. 간호학과 20년 연혁이 보고됐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이 ‘간호전문과 간호정책현안’ 주제 특강을 했다.

배지철 동창회장을 비롯한 졸업생과 재학생이 한자리에 모인 선배 간남의 자리도 마련됐다.

학술발표회에서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연구논문 10편이 발표됐다. 간호학과 20년 발전사가 담긴 사진전이 열렸다.

김숙현 기자 shkim@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김 옥 수	인쇄인 김 갑 기
◇대한간호협회 (02) 2260-2511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046368	
서울시 종로 동호로 314		◇간호사신문 (02) 2260-2571
koreanurse.or.kr		FAX (02) 2260-2579

독자주소 변경 nursesnews.co.kr

간호사신문 휘장 달기 캠페인 참여 안내



간호사신문에서 매주 게재하고 있는 ‘간호사의 자금심 휘장 달기 캠페인’ 코너에 참여하길 원하십니까?

휘장을 달고 근무하는 간호사들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신청전화 02)2260-2572

독자주소 변경 02)2260-2571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한 여성지도자들이 ‘여성폭력, 이제는 마침표!’ 문구가 적힌 스크프를 흔들며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여성폭력 단절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전국여성대회 열려 ... 간첩 등 여성지도자들 참석

제51회 전국여성대회가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여성폭력, 이제는 마침표!’ 주제로 10월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간호사 고용에 대한 유인과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간호사 배치 가산 수가를 내년에 50%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노인요양시설 평가인증 지표·방법 개선과 평가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간호서비스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대회사에서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폭력과 성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들이 많다”면서 “여성과 남성이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여성들이 적극 동참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양성평등과 양성존중의 대한민국을 위해 수고와 희생의 삶을 살아온 여성지도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면서 “이번 대회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마침표를 찍고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여성지도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해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결의문에서는 △여성 및 사회적